

## 직업능력개발

### I. 직업능력개발 정책

#### □ 정부, 「한국형 일·학습 듀얼시스템 도입 계획」 발표 (2013.9.11.)

- 지난 9월 11일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「한국형 일·학습 듀얼시스템 도입 계획」을 확정·발표함.
- 한국형 일·학습 듀얼시스템은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해 기업 현장에서 체계적인 이론·실무교육을 받고, 이를 통해 대학 학위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훈련제도로 '일 기반 학습'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설계한 것임.
  - 도입 배경: 현장 적합성이 낮은 교육으로 인해 인력 미스매치, 청년 실업 및 기업의 막대한 재교육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인력 수요자인 기업에 의한 실무 중심의 새로운 교육훈련제도를 도입하여 해결하려는 취지임.
- 「한국형 일·학습 듀얼시스템」의 개요
  - 운영 절차: ① 기업이 훈련생을 근로자로 채용, ② 이론·실무교육 제공, ③ 교육·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·인증, ④ 학력 또는 자격 인정, ⑤ 해당 기업 또는 동종업계에 완전 취업
  - 주 참여 대상: 제도 도입 초기에는 고교, 전문대학, 대학의 최종 학년 재학생과 졸업생이 될 것으로 예상
- 추진 과제
  - 올해 50개 기업을 일·학습 듀얼시스템 시범 사업 참여 기업으로 선정한 후, 다양한 지원을 통해 2017년까지 1만 개 기업이 이 시스템을 채택하도록 육성

- 기업 측의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고, 현장 트레이너를 대상으로 교수 기법 등에 대한 교육 지원
- R&D 자금 등 중소기업 대상 정책 자금 지원을 포함해 각종 재정 지원 사업 수행 시 듀얼시스템 참여 학생과 기업, 학교 등을 우선 지원
- 듀얼시스템 참여 학생과 기업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근로 조건 및 산업 안전 등의 보호 체계 구축

□ 고용노동부, 「일·학습 듀얼시스템」 시범 사업 참여 기업 선정 (2013.11.04.)

- 고용노동부는 산업계와 공동으로 명장기업 6개 기업 등 51개 기업을 제1차 한국형 일·학습 듀얼시스템 참여 기업으로 선정
  - 선정된 51개 기업에는 일·학습 병행 프로그램 개발 비용, 트레이너 양성 비용, 훈련 인프라 구축 비용 등을 지원
  - 기업 맞춤형 일·학습 듀얼프로그램 인증 후에도 현장 트레이너 양성 교육비 및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여 기업이 우수 근로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함.
- 선정 기업 현황
  - 선정 절차: 선정된 51개 기업은 산업별 협회, 관계 부처의 추천 및 공개 모집 등을 통해 발굴된 233개 기업 가운데 현장 실사 등을 거쳐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임.
  - 산업별 현황을 보면 기계 분야(45.1%), 소프트웨어 분야(31.4%)가 다수를 이루며 평균 훈련 인원은 7.1명으로 소수 정예로 체계적인 현장학습·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함.
  -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명장이 운영하는 기업 6곳 또한 선정

분야	기업수	훈련인원	평균훈련인원	비고
합계	51기업	362명	7.1명	명장기업 6개
소프트웨어 분야	16기업 (31.4%)	101명 (27.9%)	6.3명	
기계 분야	23기업 (45.1%)	167명 (46.1%)	7.3명	명장기업 4개 포함
금형 분야	7기업 (13.7%)	53명 (14.6%)	7.6명	명장기업 1개 포함
로봇·반도체·기타 분야	5기업 (9.8%)	41명 (11.3%)	8.2명	명장기업 1개 포함

- 이러한 듀얼시스템 참여 기업 발굴과 기업 선정 과정에는 5개 사업주 단체가 동참하고 있으며, 듀얼시스템에 참여한 학습 근로자에 대한 평가와 인증 과정에도 이들 단체가 참여해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평가·인증할 계획

\* 5개 사업주 단체: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, 한국기계산업진흥회, 한국로봇산업협회, 한국반도체산업협회,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

- 한편, 고용노동부와 지난 달 「한국형 일·학습 듀얼시스템 도입·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」을 체결한(10.10.) 현대자동차, 롯데백화점 등의 11개 대기업들도 금년 하반기에 듀얼프로그램 인증을 받아 학습 근로자 선발에 참여할 예정
- 참여 기업을 내년에는 1천 개 기업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함.

□ 고용노동부, 「2013 인적자원개발 우수 기관 인증 수여식」 개최 (2013.9.12.)

- 고용노동부가 9월 12일 「2013 인적자원개발 우수 기관 인증 수여식」(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)을 개최
- 「인적자원개발 우수 기관 인증제」는 인적자원개발 우수 사례 발굴 및 공유를 통해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고용노동부, 교육부, 산업통상자원부, 중소기업청 등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운영

- 우수 기관 인증 기준
  - 인적자원개발 우수 기관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1차 서류 심사, 2차 현장 심사를 거쳐 인증 기준인 700점(1,000점 만점) 이상을 취득해야 함.
  - 금년도에는 고용보험법 적용을 받고 있는 134개 사업장이 인증을 신청했고, 이 중 53개 기관이 인증 대상으로 선정
- 인증 기관 혜택
  -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3년간 우수 기관 인증 로고 및 동판 활용이 가능
  - 또한 3년간의 정기 근로 감독 면제, 중소기업청 병역 지정 업체 추천 시 가점 5점 등의 우대 지원이 있음.
  - 해당 기관 HRD 담당자를 대상으로는 국내·외 연수 지원

□ 고용노동부, <중장년 취업 아카데미> 9개소 선정 (2013.09.17.)

- 고용노동부가 중장년층의 원활한 이직 지원을 위해 <중장년 취업 아카데미>를 공모, 9월 16일 9개소를 선정·발표함.
  - 기업과 대학 등 59개 컨소시엄이 공모에 참가하였고, 이 중 중장년층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지, 서비스 내용이 적절한지, 적합한 취업처를 확보하고 있는지 등을 심사하여 최종 9개소(서비스 인원 505명)를 선정함.
- <중장년 취업 아카데미>는 기존의 단순 훈련 및 알선에 그친 직업훈련에서 벗어나 사전 경력 진단, 생애 재설계, 맞춤형 취업 훈련 및 취업 지원 등의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사업임.
  - 주 서비스 대상은 만 50대 이상 퇴직자 및 이직 예정자
  - 훈련에 따른 교육비는 전액 정부에서 지원
  - 퇴직자를 대상으로는 최대 30만 원 상당의 수당 지급
  - 10월에 참여자 모집을 시작하여 2~5개월 과정 운영

- 올해 선정된 취업 아카데미는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, 내년부터 시범 사업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미비점을 보완하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서비스 제공 인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

□ 「제48회 전국기능경기대회」 개막 (2013.9.30.)

- 기술·기능인들의 경연장이자 축제의 장인「제48회 전국기능경기대회」가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, 8일간 강원도 춘천, 원주 등 5개 경기장에서 개최
  - 고용노동부와 강원도, 강원도 교육청이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(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)과 강원도 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제과제빵 등 48개 직종의 전국 17개 시·도 대표선수 1,884명이 참가
  - 「전국기능경기대회」는 1966년부터 숙련 기술인의 사기 진작과 숙련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음.
- 올해 대회의 경우, 예비 숙련 기술인의 발굴 및 지역 간 기술·기능 수준의 비교를 통한 기술 향상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더불어 일상적으로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쉽게 이해하고, 직접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 ‘국민 참여형 특색 기능경기대회’가 구성·운영되는 것이 특징
  - 더불어 국제심사위원을 초빙하고, <기능 올림픽 출신 기능인의 경력 경로>를 주제로 하는 기능올림픽 국제 포럼을 개최하는 등 국제기능올림픽 회원국과의 기능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음.

□ 한국산업인력공단, 『아시아 개도국 인적자원개발(HRD) 정책 책임자 워크숍』 개최 통해 한국형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을 아시아 지역 6개 개발도상국에 전수 (2013.10.28.)

-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, 5일간 글로벌숙련기술진흥센터(GIFTS)에서『아시아 개도국 인적자원개발(HRD) 정책 책임자 위

크숍』을 개최

- 인도 인적자원개발공사(NSDC) 이사장 등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 6개국의 인적자원개발 분야 고위 공무원과 아시아개발은행(ADB), 독일국제개발협력공사(GIZ)의 고위 관계자가 참석해 우리나라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공유, 또한 공단-개도국-국제기구의 삼자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함.
- 워크숍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01년부터 개최해 온 것으로, 지난해까지 개도국 정책 책임자 233명이 참가하여 각국의 인적자원개발 현황 및 우리나라의 인적자원개발 노하우를 공유
- 최근 베트남에서는 우수 산업인력 양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우리나라의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도입한 바 있고, 이와 관련해 공단이 베트남에서의 국가기술자격 제도 도입을 지원함.
- 공단에서는 또한 올해 1,000억 원 규모의 리비아 교육훈련시스템을 수출(초청연수 및 직업훈련센터 건립)한 바 있음.

**□ 기획재정부, 2014년 예산안 발표, 현장 중심 직업교육·훈련 강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역점 (2013.9.26.)**

- 기획재정부는 9월 26일 경제 활력 회복, 일자리 창출 등 5가지 과제에 중점을 둔 2014년 예산안을 발표. 그중 일자리 창출 과제의 세부 과제로 “현장 중심의 직업교육·훈련 강화”가 제시되었으며, 현장 수요 중심, 중소기업 지원 확대, 공공기관 역할 강화가 그 주요 내용임.
- 현장 수요 중심
  - 지역 내 대학·기업·사업주 단체가 공동으로 설계·운영하는 맞춤형 직업훈련 과정 확대(2→22개소)
  - 중소기업의 인력 양성 종합 컨설팅 지원(65→1,300개 기업) 및 사내 트레이너

- 육성 등 현장훈련 지원(400→1,300개 기업) 강화
- 또한 바이오·플랜트 등 전략산업 전문직종 훈련 강화(1.5→2.3만 명)
- 중소기업 지원 확대
  - 중소기업에 대한 훈련비 지원 비율은 확대(훈련비의 50→60%)하고 대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은 축소(훈련비의 40→25%)
  - 중소기업 핵심 직무 과정 지원 강화(3→5만 명)
- 공공기관 역할 강화
  - 폴리텍대학에 여성캠퍼스(서울 강서)를 구축하고 직업훈련 지원 인원 제고
  - 직종별 취업률과 고용 유지율을 기준으로 우수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
-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·훈련 강화와 더불어 일-학습 병행시스템 도입(1,050개 기업, 221억 원)을 통한 청년층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 유도 및 경력 단절 여성 축소 및 이들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0개소 확대(120→130개소, 436→489억 원) 등 대상별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음.

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	〈청년〉 일-학습 병행시스템 도입	1,050개 기업(신규)
	〈여성〉 직장어린이집 신규설치 지원	60→90개소
	〈정년〉 중장년 취업아카데미	1,000명(신규)
	〈어르신〉 이야기 할머니 사업	990→2,000명
현장 중심 직업교육·훈련 강화 	중소기업 인력양성 종합컨설팅	65→1,300개 기업
	지역-산업 맞춤형 직업훈련 과정	2→22개소
	폴리텍대학 교육인원(명) 청년(+500), 베이비부머(+700), 여성(+500)	
	중소기업 훈련비 지원비율	50→60%

## II. 직업능력개발 통계

### □ 청년층 인구 중 직업교육(훈련) 경험자 비중은 14.7%로 전년 동월 대비 0.4%p 하락함

- 직업교육(훈련)을 받은 시기는 '재학/휴학 중'이 53.2%로 가장 많고, '졸업/중퇴 후'가 35.9%, '재학/휴학 중 및 졸업/중퇴 후 모두'가 10.9%임.

표 1. 청년층의 직업교육(훈련) 경험자 비율

(단위: %, %p, 전년 대비)

	2009. 5	2010. 5	2011. 5	2012. 5	2013. 5	증감
경험 있음	15.8	15.8	15.3	15.1	14.7	-0.4
— 재학/휴학 중	48.6	50.1	50.6	50.8	53.2	2.4
— 졸업/중퇴 후	39.9	40.1	38.6	37.7	35.9	-1.8
— 재학/휴학 및 졸업/중퇴 후 모두	1.3	9.8	10.8	11.6	10.9	-0.7
경험 없음	84.2	84.1	84.7	84.8	85.3	0.5
미상	0.1	0.0	0.0	0.0	0.0	0.0

자료: 통계청(각 연도),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.

- 청년층의 특성별 직업교육(훈련) 경험자 비율을 보면 다음과 같음.
  - 성별로는 청년층 여성의 직업교육(훈련) 경험자 비율이 16.8%로 남성(12.5%)보다 높고, 연령별로는 25~29세의 경험자 비율이 26.3%로 가장 높게 나타남.
  - 경제 활동 상태별로는 실업자가 28.8%로 가장 높게 나타남.
  - 학력별로는 재학/휴학생보다는 졸업/중퇴자 내의 비율이 높는데, 대졸 이상의 졸업/중퇴자가 31.9%로 가장 높음.

표 2. 청년층 특성별 직업교육(훈련) 경험자 비율

(단위: %, %p, 전년 대비)

		2009. 5	2010. 5	2011. 5	2012. 5	2013. 5	증감	
전체		15.8	15.8	15.3	15.1	14.7	-0.4	
성별	남자	13.3	13.1	12.7	12.1	12.5	0.4	
	여자	18.2	18.4	17.8	18.1	16.8	-1.3	
연령	15~19세	1.8	1.8	1.9	2.3	2.2	-0.1	
	20~24세	17.0	18.2	16.6	17.1	15.4	-1.7	
	25~29세	26.7	26.7	26.7	25.9	26.3	0.4	
학력1	고졸 이하	10.2	10.1	9.4	9.2	8.7	-0.5	
	전문대졸	23.9	23.9	22.5	23.9	23.1	-0.8	
	대졸 이상	31.1	32.0	32.4	31.1	30.7	-0.4	
학력2	재학/휴학	고졸이하	1.0	1.0	0.8	1.2	1.2	0.0
		전문대	10.5	7.6	8.4	7.8	6.9	-0.9
		대학이상	11.6	12.3	12.7	10.7	10.4	-0.3
	졸업/중퇴	고졸이하	21.3	21.0	18.4	19.7	19.3	-0.4
		전문대졸	23.9	23.9	22.5	23.9	23.1	-0.8
		대졸이상	32.2	33.7	33.8	32.8	31.9	-0.9
경제활동 상태	취업자	22.9	23.8	22.9	23.1	21.9	-1.2	
	실업자	25.5	22.7	30.4	30.7	28.8	-1.9	
	비경활	9.8	9.5	8.8	8.2	8.8	0.6	

주: 학력2에서 전문대학이나 대학교 중퇴의 경우 고졸 이하에 포함.

자료: 통계청(각 연도),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 조사.

□ 청년층의 주요 직업교육(훈련) 기관을 살펴보면, 직업교육(훈련)을 받은 적 있는 청년층의 62.3%가 사설 학원에서 직업교육(훈련)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.

○ 다음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(12.0%), 공공단체 운영 훈련 기관(8.3%) 순임.

표 3. 청년층의 주요 직업교육(훈련) 기관

(단위: %, %p, 전년 대비)

	2009. 5	2010. 5	2011. 5	2012. 5	2013. 5	증감
공공단체 운영 훈련기관	8.5	8.3	7.1	7.1	8.3	1.2
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	11.6	12.4	12.8	13.0	12.0	-1.0
비영리 법인 및 단체	4.5	4.3	3.2	3.9	3.5	-0.4
대학 및 대학원	3.2	3.5	5.2	6.0	6.1	0.1
평생교육시설	0.9	1.6	1.3	1.6	1.6	0.0
사설학원	65.6	65.0	64.9	62.6	62.3	-0.3
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	3.6	3.3	4.2	4.4	4.6	0.2
기타	2.0	1.6	1.2	1.4	1.7	0.3

자료: 통계청(각 연도),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.

- 직업교육(훈련)을 받은 시기별로 살펴보면, ‘재학/휴학 중’에 받은 경우에는 사설 학원(64.5%), 대학 및 대학원(10.7%),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(6.1%)의 순으로 나타남.
  - ‘졸업/중퇴 후’ 직업교육(훈련)을 받은 경우에는 사설 학원(54.5%),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(24.3%), 공공단체 운영 훈련 기관(13.3%) 순으로 높게 나타남.
  - 직업교육(훈련)을 ‘재학/휴학 중 및 졸업/중퇴 후 모두’ 받은 경우에는 사설 학원(77.1%)의 비중이 현저히 높고 다음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(6.3%)이 높게 나타남.

표 4. 청년층의 직업교육(훈련) 참여 시기별 주요 직업교육(훈련) 기관

(단위: %, %p, 전년 대비)

직업교육(훈련) 참여 시기	직업교육(훈련) 기관	2009. 5	2010. 5	2011. 5	2012. 5	2013. 5	증감
재학/휴학 중	공공단체 운영 훈련기관	4.4	5.0	5.0	5.7	5.5	-0.2
	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	6.1	5.5	5.6	4.1	4.8	0.7
	비영리 법인 및 단체	7.5	7.0	5.5	6.1	5.2	-0.9
	대학 및 대학원	5.5	5.3	8.7	10.2	10.7	0.5
	평생교육시설	0.5	1.3	0.8	1.4	1.1	-0.3
	사설학원	68.8	70.6	68.7	65.4	64.5	-0.9
	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	4.3	3.1	3.9	4.9	6.1	1.2
	기타	2.9	2.1	1.9	2.1	2.1	0
졸업/중퇴 후	공공단체 운영 훈련기관	13.6	12.6	10.5	10.5	13.3	2.8
	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	18.9	22.3	24.2	26.0	24.3	-1.7
	비영리 법인 및 단체	1.7	1.2	0.6	1.1	1.1	0.0
	대학 및 대학원	0.5	1.5	0.8	1.0	0.8	-0.2
	평생교육시설	1.3	2.4	1.8	1.7	1.9	0.2
	사설학원	60.0	55.8	58.1	55.2	54.5	-0.7
	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	3.0	3.4	3.7	4.0	3.0	-1.0
	기타	1.0	0.8	0.3	0.5	1.2	0.7
재학/휴학 및 졸업/중퇴 후 모두	공공단체 운영 훈련기관	8.1	7.0	5.3	2.6	5.8	3.2
	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	10.2	7.5	6.1	9.2	6.3	-2.9
	비영리 법인 및 단체	1.2	2.5	1.8	3.4	3.0	-0.4
	대학 및 대학원	3.0	2.7	4.9	3.6	1.5	-2.1
	평생교육시설	1.0	0.4	1.8	2.3	2.8	0.5
	사설학원	71.8	73.5	71.7	73.7	77.1	3.4
	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	2.8	3.8	7.4	4.1	2.7	-1.4
	기타	1.9	2.6	1.1	1.1	0.8	-0.3

자료: 통계청(각 연도),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 조사.

〈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개요 및 설문 문항〉

- 조사 목적: 청년층의 취업 실태에 대한 심층적인 파악을 통해 효과적인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공
- 조사 대상: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상 가구원 중 15~34세 연령층에 속하는 가구원
- 조사 주기: 2002년 6월에 제1차 부가조사를 실시한 이래 2003년부터는 매년 5월에 조사 실시
- 교육훈련 관련 설문 문항

45. 학교교육 외에 취업을 위하여 학원에 다니거나 직업교육(훈련)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?

-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없음(☞ 47번으로) | 3. 졸업/중퇴 후 받았음              |
| 2. 재학/휴학 중 받았음 | 4. 재학/휴학 중 및 졸업/중퇴 후 모두 받았음 |

※ '직업교육(훈련)'은 학교 내 정규 교과과정 실습 이외의 현장실습, 위탁 교육, 공공/민간 직업훈련기관, 인턴 등을 의미

46. 직업교육(훈련)을 받은 기관은 다음 중 주로 어느 곳이었습니까?

- |   |   |
|---|---|
| 1. 공공단체운영훈련기관(한국산업인력공단, 한국폴리텍대학(기능대학),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) | 5. 평생교육시설   |
| 2.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(민간직업전문학교 등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. 사설학원   |
| 3. 비영리 법인 및 단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.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(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) |
| 4. 대학 및 대학원   | 8. 기타   |

※ 훈련기관이 2곳 이상인 경우는 직업훈련에 소요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

◆ 고용보험 동향

□ 2013년 9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은 176만 개소로 전년 동월 대비 14.0% 증가

- 피보험자는 1,150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.0% 증가함.

표 5.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및 피보험자 현황

(단위: 개소, 명, 건, %)

	2012.9	2013.8		2013.9			
				전년 대비		전월 대비	
				증 감	증감률	증 감	증감률
○사업장	1,540,237	1,713,846	1,755,820	215,583	14.0	41,974	2.4
○피보험자(순수)	11,067,737	11,471,352	11,507,064	439,327	4.0	35,712	0.3
남 자	6,731,531	6,923,980	6,935,073	203,542	3.0	11,093	0.2
여 자	4,336,206	4,547,372	4,571,991	235,785	5.4	24,619	0.5
취득자	476,997	455,234	442,087	-34,910	-7.3	-13,147	-2.9
상실자	431,618	417,394	393,386	-38,232	-8.9	-24,008	-5.8

주: 피보험자 통계는 상시 근로자 대상, 일용 근로자는 제외.  
출처: 한국고용정보원, 2013년 9월 고용보험통계 현황.

□ 2013년 9월 직업능력개발사업 건수는 9만여 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.4% 증가

○ 세부 사업별로는 직업능력개발훈련(38.5%),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(36.0%),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(22.5%)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반면, 유급휴가훈련(-24.5%),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(-25.1%)는 감소함.

표 6. 직업능력개발사업 건수

(단위: 건, %)

	2012.9	2013.8		2013.9		2013.9월누계	
				전년 대비	전월 대비		
전체	71,139	105,103	90,614	27.4	-13.8	874,340	
직업능력 개발훈련	16,917	25,486	23,431	38.5	-8.1	204,023	
유급휴가훈련	302	313	228	-24.5	-27.2	3,294	
근로자직무능력 향상지원금	12,461	17,113	16,952	36.0	-0.9	159,485	
내일배움카드제	재직자	1,703	1,399	1,276	-25.1	-8.8	14,256
	자영업자	0	27	14	-	-48.1	127
	실업자	39,756	60,765	48,713	22.5	-19.8	493,155

주: 1) 정부에서 위탁한 사업의 지원실적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.  
2)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된 것이므로, 일반회계 등을 포함하는 타 기관의 통계수치와 다를 수 있음.  
출처: 한국고용정보원, 2013년 9월 고용보험통계 현황.

□ **직업능력개발사업 금액은 505억 4천만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.9% 증가**

○ 세부 사업별로는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(-16.4%)만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였고 직업능력개발훈련(10.5%), 유급휴가훈련(6.8%),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(110.4%),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(34.8%)는 전년 동월 대비 모두 증가

표 7. 직업능력개발사업 금액

(단위: 백만 원, %)

	2012.9	2013.8	2013.9		2013.9월누계		
			전년 대비	전월 대비			
전체	41,138	54,447	50,547	22.9	-7.2	445,568	
직업능력 개발훈련	23,132	25,586	25,559	10.5	-0.1	208,560	
유급휴가훈련	547	593	584	6.8	-1.5	6,881	
근로자직무능력 향상지원금	2,236	4,538	4,704	110.4	3.7	40,235	
내일배움 카드제	재직자	1,612	1,410	1,347	-16.4	-4.4	14,555
	자영업자	-	6	3	-	-43.2	30
	실업자	13,612	22,314	18,349	34.8	-17.8	175,307

주: 1) 정부에서 위탁한 사업의 지원실적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.

2)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된 것이므로, 일반회계 등을 포함하는 타 기관의 통계수치와 다를 수 있음.

출처: 한국고용정보원, 2013년 9월 고용보험통계 현황. KRIIVET

(작성: 박보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)